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 (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 (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김 인 제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대도시권역의 도시관리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청 수립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 경기도, 인천의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집행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만 운영 중이며, 광역대도시권역의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등에 대한 행정기구 또는 협의기구 등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서울 및 경기도, 인천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하나의 광역적 도시공간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행정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도시간의 불균형 발전 및 연계부족,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적 개발행위 및 토지이용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태임. -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9년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을 수립한바 있고, 현재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나, 각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공간활용에 대한 국가주도의 계획수립과 집행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AMB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p>첫째, 자치단체와 행정구역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대도시권역의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p> <p>둘째, 광역권역의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과 주택, 환경, 사회경제, 도시계획 분야만 별도로 행정청을 둬도 따라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해짐</p> <p>셋째, 단순한 기능적 통합뿐만 아니라 조세 및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광역권역을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 카탈로니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해짐</p>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 (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 (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강 대 호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건		
<p>○ 건축 민간단체의 역할과 우수사례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AC는 카탈루냐 고등건축연구소로 연구 및 교육, 신소재의 생산 및 홍보 등을 주도하는 민간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단체는 건축물과 디자인의 경계를 확장하고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신소재 등을 개발하기도 하며, 3D프린터를 활용한 집짓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만드는 등 건축과 도시계획, 산업과 신소재 등을 여러분야를 넘나드는 민간연구소라고 할 수 있었음. - 이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실제와 같은 경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IAAC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원의 소비에서 자원의 생산능력을 갖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세계도시들간 교류와 협력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Fab City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왔음. - IAAC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학 및 생물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 (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 (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이 경 선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 빌바오 메트로폴리 30 기관방문 및 도시재생 성공사례 검토
 - 빌바오는 바스크 지역 항구도시로 1960년대 제철 및 조선 등이 중심인 산업도시였으나, 1970년대 경제위기와 중공업의 쇠퇴로 인해 급속도로 쇠퇴해져갔으며, 환경오염 문제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
 - 이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단순한 도시재생이 아닌 경제 및 문화,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도시재생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음
 - 메트로폴리 30은 민간 비영리단체이며 계획 및 전략수립만 담당해오고 있고, 실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무는 리아 2000에서 담당하고 있음
 - 빌바오는 지역 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장기적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오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었음
 -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 설립에 대한 반대가 매우 심각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속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며, 미술관 건립 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체험한 지금은 모든 시민이 만족스러워하고 있음
 -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은 시민의 설득과 이해, 참여가 최우선이었고, 이를 근간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고 병 국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바르셀로나시의 도시재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셀로나 AMB기관방문을 마친 후 도시재생사례 지역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였음 - 처음으로 방문한 코르네야 데 요브레가트(Cornella de Llobregat)지역의 Canal De La Infanta는 19세기 초에 건설된 운하로 바르셀로나의 농업발전에 기반이 되었고, 이후 산업활동과 도시성장의 근간이 되어왔음 - 20세기에 이르러 낙후되고 슬럼화 된 공장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운하를 지하로 매립(약 1.7km)하고 도로 및 방치된 건축물들을 정비하는 코르네야 데 요브레가트(Cornella de Llobregat)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코르네야 데 요브레가트(Cornella de Llobregat)의 공장 이적지 및 미활용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방식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후 슈퍼블럭으로 설계한 공공주택 공급현장을 방문했는데, 건축물 가운데에 중정을 둔 것과 같은 “口” 자 모양의 건축물로, 면적 및 용적률, 공급세대수 보다도 주민간의 소통과 독창적인 건축설계에 중점을 두고 건축한 공공주택이었음. - 특히 바르셀로나 시는 집값이 매우 높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변시세 대비 반값으로 분양하는 정책을 시행중이었는데, 향후 제도도입 및 시행가능성 여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김 재 형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과 서울시 적용방안

- 포플레노우는 18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방직관련 공장과 산업이 발달했었으나, 이후 1980년대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노후화 및 쇠퇴화를 겪게됨
- 1990년대에 들어 이지역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버려지고 방치된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22@ Barcelona를 추진함
- 이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었는데, 공공은 재생사업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민간은 산업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 등의 개별건축물의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생사업을 진행하였음
- 따라서 관(官) 주도의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 등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음
- 한편 바르셀로나의 수퍼블럭은 만나사(블럭) 9개를 묶은 단위로서, 가로세로가 각각 400m정도이며, 수퍼블럭 안쪽 차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구획된 것이 특징이고, 주민 소유 자동차나 응급차 등만 통행이 가능함.
- 이는 도심 내 차량 운행을 억제하여 환경오염과 공공공간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블록단위로 조성된 계획도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서울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짐.
- 그럼에도 도심내 차량 운행 억제와 환경보호, 공공공간 확보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설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김 종 무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 빌바오의 도시재생에서 얻은 교훈
-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빌바오 전체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진행한 사업이었으며,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반대가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음
 -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주민들도 아반도이바라 지역을 재생한 후 부터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장기간 추진해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공공과 민간 모두가 공감하고 메트로폴리 30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기 때문임.
 -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사실상 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 정비사업 또는 개발사업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빌바오의 도시재생사례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민관합동 연구소인 메트로폴리 30에서 계획과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사업시행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설립한 리아 2000에서 담당하였음
 - 메트로폴리 30은 지역 대학, 금융, 철도, 전기, 시청 등 모든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이며, 현재 140개 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빌바오 시청 또는 회비를 내는 140개 회원 중 하나일 뿐이며 철저히 관련된 연구주제에 따라 실무진만 참여하는 독립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할 수가 없는 구조임
 -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 및 실행하고 있는데, 빌바오의 도시재생사례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도시재생 실행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노 식 래 (서명)
		소 속
검 토 의 견		
<p>○ 리스본의 도시재생 사례 답사 및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본의 엑스포지구는 1998년 국제박람회를 개최한 곳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단지임 - 1998년 10개년 장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빈민지역이었던 곳을 오리엔트역과 연계하여 고밀도 주거단지 및 바스코 다 가마 쇼핑센터, 해양관 등과 함께 리스본의 신도심으로 개발하였음 - 개발계획 수립 시 오리엔트 역을 중심으로 하는 환승센터 및 쇼핑몰, 아파트, 오피스 등을 단지형으로 계획하고 개발한 점이 특징으로, 리스본의 알파마 지구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포인트이며, 포르투갈의 도시재생 사례지역임 - 한편 리스본의 벨렘지구의 경우 과거 섬유 및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해있었으나 산업들이 쇠퇴하며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세계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광산업 중심지역으로 조성된 지역임. - 스페인 빌바오 사례와 같이 문화와 관광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사례는 역사 문화도시인 서울에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역사자원을 관광 산업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박 상 구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드리드 건축가협회(COAM)는 건축관련 직능단체로 건축가들의 교육과 사회적 이익, 건축물의 문화 및 환경가치를 보호하는 법정단체이며, 운영을 위해 마드리드 지역사회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고 있음 ○ 또한 건축가들의 기술적 능력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건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공급하고 있음 ○ 기관방문시 면담한 벨렌 에르미다 로드리게스 협회장에 따르면, COAM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올해로 16번째 진행되는 건축주간이라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마드리드의 도시계획에 대한 토론과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 등에 대한 토론, 컨퍼런스, 전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건축가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정책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COAM은 마드리드 리오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하였으며, COAM 건물자체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개방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다는 점에서 민간 건축직능단체가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신 정 호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례는 마드리드 리오와 카스카라 보행교, 마타데로 도시재생지구를 꼽을 수 있음 ○ 마드리드는 과거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을 우회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였으며, 마드리드 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공간의 강변을 따라 6개 지역에 걸쳐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카스카라 보행교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길, 문화체육시설을 등을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음 ○ 마타데로 도시재생지구는 1925년부터 1996년까지 도축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후 방치되어 왔고, 마드리드시는 방치된 혐오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시, 공연, 창작공간, 카페, 영화관 등이 운영되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 마드리드의 이 두 가지 도시재생사례의 공통점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인데, 마드리드 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11,930㎡의 수변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마타데로 도시재생지구의 경우 8개의 건물과 광장으로 구성되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로 볼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참고해야할 필요가 있겠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 (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 (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이 상 훈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빌바오의 아즈쿠나센터 재생사례와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알론디가 빌바오라는 과거 와인 저장소를 개조하여 만든 아즈쿠나센터는 건축물의 외형은 과거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는 현대적이고 독특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었음. - 이 건축물 내부에는 3개의 새로운 건축공간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동마다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세미나 공간,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 특히 건물 로비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반투명한 수영장 바닥이 보여, 천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의 외형이 비춰지도록 독특하게 건축되어 있음 - 건축물 내부 공간 중 특히 도서관으로 조성된 공간이 인상 깊었는데, 시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실과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멀티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과 게임할 수 있는 공간, 공부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등 누구나 편히 놀고, 쉴 수 있고 또 방문하고 싶도록 만드는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음 -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민 도서관을 조성할 경우 빌바오의 아즈쿠나 센터의 도서관 조성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정 재 응 (서명)
		소 속
검 토 의 견		
<p>○ 빌바오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바오의 구겐하임 박물관은 “구겐하임 효과” 라고 부를 정도로 침체된 산업도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1997년 개관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개관 후 연간 100만명 이상 관람객이 몰려들었으며 빌바오를 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프로젝트이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음 -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접근하여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시행해왔다는 점에서 본받을만한 사례라고 생각됨. - 특히 공공과 민간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해온 사례라는 점은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메트로폴리 30과 같은 민관협력 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 역시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이 석 주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리스본 엑스포지구 현장방문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추진중인 곤돌라형 신이동 교통수단 검토 방안에 대하여 착안점을 갖고자 리스본 엑스포지구 수변 텔레케빈을 시찰하였음 <p>○ 왜 엑스포지구에 텔레케빈을 설치했을까? 자문해볼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엑스포지구의 결절역(오리엔트 중앙역과 연계되는 북역 Passeio das Tagides과 남역 Passeio de Neptuno)간 연결함으로써 보행 편의 지원 수단으로 기능. - 둘째, 수변에 조성된 엑스포지구 중 거점 시설(바스코다가마 광장, 컨벤션센터, 경기장, 쇼핑센터와 해양수족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겠음 <p>○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케빈이 없었다면, 엑스포지구 방문하는 이용자가 거점 시설을 편리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임. - 수변을 따라 형성된 남북 방면 거리가 1.5km 이상인 지구 규모를 감안할 때 거점 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엑스포지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교통수단 탑승 자체만으로는 관광 효과도 부수되는 효과임. <p>○ 서울시 적용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포지구의 텔레케빈은 대규모 개발사업시 복합하여 개발한 반면, 서울시는 신이동 교통수단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거점시설 간 연계 외에 교통 소외 지역 간 교통편의 요소를 보다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